

2020. 1. 5. **주님 공현 대축일**



“일어나 비추어라. 너의 빛이 왔다. 주님의 영광이 네 위에 떠올랐다.” (이사 60,1)

교구가톨릭사건회

**제1독서** 이사 60,1-6

**제2독서** 에페 3,2,3-5-6

**복음** 마태 2,1-12

**화답송** 주님, 세상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경배하리이다.



**복음환호송** 우리는 동방에서 주님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노라.

**영성체송** 우리는 동방에서 주님의 별을 보고, 예물을 가지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노라.

## “일어나 비추어라.”

(이사 60,1)



삶의 자리에서 빛나는 별이 됩시다

**동**방박사들은 별의 인도로 ‘유다인의 임금’으로 태어나신 분’을 찾아 떠납니다. ‘그분의 별’은 동방박사들의 시선을 사로잡았고, 결국 먼 길을 떠나 그 별이 인도하는 곳으로 가겠다는 결심을 불리일으키죠. 그리고 자신들을 인도하던 별이 멈춘 곳에 이르러 그토록 바랐던 아기 예수님을 만나 그분께 경배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것은 ‘그분의 별’ 덕분이었습니다.

오늘 복음을 묵상하며 이런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만약 ‘그분의 별’이 다른 별과 구분되지 않는 희미한 별빛 가운데 하나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동방박사들이 그 별을 따라 먼 길을 가겠다는 결심을 할 수 있었을까? 아마 평범한 별들 가운데 하나라 여기며 그들은 그 별에 특별한 관심을 주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별’은 동방박사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만큼 특별한 별이었기에 먼 길을 떠나야 하는 수고로움과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그들의 발걸음을 움직였죠.

여러분은 다른 누군가의 시선을 사로잡을 만큼 ‘특별한 별’이신가요? 아니면 자신의 빛을 잃어버린 채 희미하게 반짝이는 ‘평범한 별’이신가요? 우리는 모두 창조 때부터 아주 찬란히 빛나는 빛을 지닌 ‘특별한 별’이었지만 자신의 선택에 따라 빛의 밝기를 잃기도 혹은 유지하며 살아가기도 또는 더 밝게 환히 빛나기도 합니다. 우리 각자가 지니고 있는 ‘신앙의 빛’은 세상의 법칙을 선택하느냐 하늘나라의 법칙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밝기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찬란한 ‘신앙의 빛’을 선물로 받았다지만 세상의 법칙만 선택한다면 자신에게 주어진 고유한 신앙의 빛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반면 세상의 법칙이 아닌 하늘나라의 법칙을 선택하며 살아간다면 자신에게 주어진 고유한 빛을 더욱 찬란히 밝힐 수 있게 되죠.

‘세상의 법칙’에 의해 자신에게 주어진 고유한 ‘신앙의 빛’을 잃어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와 같은 시대에 ‘신앙의 빛’을 비추는 ‘신앙의 별’들이 자신의 빛을 밝게 비춘다면 이 별들로 인해 세상 사람들은 하느님께 시선을 돌릴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더 나아가 ‘그분의 별’을 따라 아기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나’라는 ‘신앙의 별’을 따라 누군가는 예수님께 인도될 수도 있겠죠.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신앙의 빛을 잃지 않고 밝게 빛나는 별이 되도록 합시다. 각자의 고유한 신앙의 빛을 잃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바로 세상 안에 ‘그분의 별’이 되어 이웃들을 아기 예수님께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선택과 행동만이 남았습니다.

“일어나 비추십시오.”

이상훈 파트리치오 신부  
두암동 본당



## 한국에서의 거룩한 밤<sup>2)</sup> III

1942년 12월  
제랄드 매리난 *Gerald Marinan* 신부

### 홍천 성당

홍천 성당은 대부분 한국 성당이 그러하듯 허름한 건물이었다. 벽은 대나무로 틀을 짜서 진흙을 덮은 후 회반죽으로 마감하였고, 지붕은 함석으로 만들어졌다. 신자용 의자가 없다는 게 눈에 띄는 점이긴 하지만, 이는 한국에서 다반사이다. 왜냐하면 한국인들은 일반적으로 바닥에 엉덩이를 붙이고 앉기 때문이다. 제의방은 성당 안에 있기는 하였지만, 커튼이 쳐져 신자석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다. 문 바로 옆에 자리한 작은 풍금은 건반이 세 개 부러져 있고, 다른 건반 네 개는 가끔 작동하였다. 제대는 투박한 나무 재질로, 마룻바닥에서 한 계단 높은 제단 위에 있었다.

초라한 상황이었지만 우리는 머리를 맞대고 이 작은 성당을 크리스마스 축제에 걸맞게 꾸미고자 팔을 걷어붙였다. 수많은 장식용 종이를 천장으로부터 드리웠다. 성전은 다양한 색의 전구를 덤불로 감싸 화려하게 장식하였고, 조화로 제단 주변을 장식했다.

### 사제관

성당에 부속된 두 개의 방이 사제관이었다. 이 중 하나는 사무실, 거실, 공부방, 서재, 주방 등등의 정말 다용도로 사용되었다. 또 하나는 침실이었는데, 침실에 붙어 있는 작은 창고에 작은 스토브가 있어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아무나 와서 나무토막을 자주 넣어주었다. 이 스토브 덕분에 방은 가까스로 영상의 온도를 유지하였다.

이른 오후 주변 구역의 신자들이 도착하기 시작했다. 그들 중 상당수는 아침 이른 시각에 출

발해서 성당을 향한 먼 길에 오른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스토브 주위에 모여들어 잡담을 하는 그들의 모습에서 피로한 기색이라곤 전혀 보이지 않았다.

한밤중까지 고해성사를 보기 위한 끝없는 줄이 이어졌다. 미사 시간이 가까워지자 신자들은 한 쪽은 남자, 한 쪽은 여자로 나뉘어 자리에 앉기 시작했다. 모두가 들어오니 성당이 꽉 차버렸다.

자정이 되자 톰 신부가 미사를 시작했다. 성가대는 정말 최선을 다했다. 물론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아이들이 들떠 내는 것 같은 기쁨 가득한 목소리가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리며 울려 퍼진다는 것 그 자체가, 음악적 화음을 넘어서는 아름다움을 보여주었다.

육화하시는 만물의 주인을 맞이하는 백성들의 기도가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동안, 묵주알이 신자들의 투박한 손가락들을 타고 한 알 한 알 내려갔다. 거양된 성체를 향해 하느님의 백성들이 경배하는 이 순간, 이교異敎의 흔적은 아스라이 사라진 듯 느껴졌다. 산사의 북소리는 내일로 울려 퍼지겠지만, 지금 눈앞에 펼쳐진 아름다움은 깨지지 않을 것이다. 전쟁으로 신음하는 세상의 한 구석에 지상의 평화가 임하였다.

톰 신부는 언젠가 더 나은 성당에서 더 많은 신자들과 함께할 수 있겠지만, 3년 전 홍천에서의 크리스마스 때 보았던 헌신과 신앙 깊은 모습은 그에게 언제나 최상의 것으로 기억될 것이다.

1) 「The Far East」는 대한민국에 왔던 성 골롬반 외방선교회 신부들이 본국(아일랜드)에 돌아가 자신들의 사목활동의 성과와 살면서 보고 듣고 느낀 바를 글로 썼고, 이를 실은 잡지다.

2) "Holy Night in Korea"(1942. 12월), p 6-7.



## 수용, 받아들임

허 찬 베드로 신부 / 광주가톨릭대학교

남들한테 늘 그리고 항상 인정받기를 원했던 어떤 사람은 자신의 작은 실수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일을 다 망쳐버렸어요. 사람들은 말하지 않지만, 제가 없는 자리에서 다 저를 비난하고 저와 같이 일을 하지 않으려 할 거예요.” 이분은 작은 실수에도 큰 수치심을 느끼고 있었기에 그런 부끄러운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반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셨던 어떤 분은 “제가 재벌도 아니고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내 처지를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그냥 인정하려고요.”라며 담담하게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힘들고 지친 얼굴로 지냈었는데, 어느 순간 현재라고 하는 지금 이 순간을 그냥 받아들이고 인정하다보니 마음이 편안해졌다고 하였습니다. 자신이 갑자기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것도 아니기에 지나친 기대와 비현실적인 이상을 접고 소소하게 현재를 잘 살 수 있으면 된다는 마음으로 선물과 같은 현재를 살아간다고 하였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세상의 백 가지, 천 가지, 만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 해결책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수용, 즉 받아들임입니다. 내가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다 보니 그 안에서 스트레스 받으며 힘들게 지내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한 기업을 경영하셨습니다. 하지만, 부도가 나서 지금까지 자신이 일구었던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처음에는 절대 돌아오지 않을 화려했던 과거만을 생각하며 현실을 부정하고 지금의 나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지금 나는 과거의 회사 경영자가 아닌 낮은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사실을 차츰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낮은 자리에서부터 다시 시작하여 지금은 그때만큼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안정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자신에게 문제가 있음을 깨닫지 못한 채 계속 그 누군가를 비난하고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 끊임없이 불평과 불만을 쏟아 보면 내 탓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인해 나 자신이 힘들게 여기 이 자리에 선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문제의 원인은 나한테 있었던 것이 아니었을까요? 부족한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고 싶지 않다 보니 내 탓이라고 하기 보다 분노를 담아 남 탓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실을 받아들이고,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용기를 가지고 기도로 청해봅시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루카 1,38)



### 교구장 김희중 히지노 대주교님 영명축일

1월 11일(토)은 교구장이신 김희중 히지노 대주교님의 영명축일입니다.  
교구장님의 영육간 건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랑의 고리가 되어 「이럴 때는 이런 기도」



천천히 숨을 쉬기만 해도 기도가 된다는 어느 시인의 말처럼 ‘추위에 숨결의 하얀 입김이 번지는 순간도 기도가 되는가?’라는 물음을 던지고 싶은 계절입니다. 새해의 기대와 축복이 한해를 짊 채워줄 것 같은 기쁨과 맞닿아 있어 미래가 밝아지는 1월엔 어떤 기도를 하시나요? 아무래도 감사와 찬미의 기도가 많이 올려지겠지요. 그러나 더러는 어려움 속에서 절망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어쩌면 속절없는 고통의 마음이 주님과 하나가 되기를 거부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슬플 때, 사랑하는 이를 잃었을 때, 삶의 변화가 필요할 때... 수없이 만나는 상황 앞에서 메리 피터 마틴 수녀는 「이럴 때는 이런 기도」라는 글로 기도에 대한 새로운 초대를 하고 있네요. 문학적으로도 아름답기로 손꼽히는 성경시편이 내 마음을 대신해주는 구절들로 기도하다 보면 어느새 하느님께 호소하는 인간의 간절함이 가까이 다가가는 체험을 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과 일, 가정생활, 틀어진 관계 또는 상

실과 외로움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열게 하는 수녀님의 친절함 안내가 돋보입니다. 곁에 다가와 조용히 말을 걸어주는 하느님의 음성을 느끼라고 합니다.

다양한 상황에서 만나는 어려움과 고통에서 치유 받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조용히 상처를 덮어주는 하얀 눈발처럼 고마운 책이구나 싶습니다. 「이럴 때는 이런 기도」는 8장에 걸쳐 각 자의 삶에 맞게 기도할 수 있는 기도문을 제시한 점도 친절한 예입니다. 성모님과 함께 하는 묵주기도, 십자가의 길 등은 메리 피터 마틴 수녀의 깊은 묵상에서 나온 기도입니다. 때문에 더욱 아름다운 교회 전례와 어우러지는 기도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무엇보다도 많은 체험을 나누어 준 분들의 삶을 바탕으로 이 책을 쓰게 된 동기가 되었다하는 메리 피터 마틴 수녀는 겸손하게 독자들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도만이 줄 수 있는 위로를 통해 상처를 회복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얻고, 하느님께로 가는 신뢰 가득한 여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느님의 크신 자비를 구하고, 그분의 사랑스러운 보살핌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기를 청합니다. 기도하면서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는 분께 우리의 모든 걱정을 맡깁시다.”

주님을 향해 걷는 우리 모두, 언제, 어디서든 만날 수 있는 신앙인의 아름다운 기도가 힘이 되길 바라면서 2020년 새해의 길을 열어주길 희망해 봅니다.

전영금 세실리아 수녀(성바오로 딸 수도회)

### 남재희 율리아노 신부 퇴임



1977년 12월 28일 사제품(출신 : 동산동 본당)을 받은 남재희 신부님은 계림동 본당 보좌를 시작으로 무안, 조곡동, 남동, 월곡동, 교포사목(미국), 운암동, 저전동, 쌍촌동, 대성동, 완도, 망운, 삼각동 본당 주임으로 사목활동을 하셨습니다. 교육국장,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사무처장을 역임하셨습니다.

**퇴임미사** 일시 : 1.11(토) 10:30 / 장소 : 삼각동 성당

### 김희항 프란치스코 신부 퇴임



1985년 9월 20일 사제품(출신 : 호남동 본당)을 받은 김희항 신부님은 용당동 본당 보좌를 시작으로 원동, 방림동, 교포사목(파리, 함부르크), 매곡동, 연동, 계림동, 신기동 본당 주임으로 사목활동을 하셨습니다. 성소국장, 광주가톨릭대학교 교수, 광주평화방송 사장, 가톨릭센터 관장을 역임하셨습니다.

**퇴임미사** 일시 : 1.12(주일) 10:30 / 장소 : 신기동 성당

\* 한평생 사제로 교회를 위해 열정을 바치신 신부님들께 감사드리며, 원로사목자로서 영육 간에 건강하시도록 우리 모두 기도드립니다.



### 교구장 대주교님 동정

- 1월 5-6일 교구 3개년 특별 전교의 해 연석회의  
광주 ME 신년 발(배)사(성암동)
- 1월 6일 수도자 신년 미사
- 1월 8일 사제·부제 서품미사(광주여대학교)
- 1월 11일 남재희 신부 퇴임미사(삼각동)
- 1월 12일故이태석 신부 선종 10주기 추모미사  
(살레시오중고등학교)



### 총대리 주교님 동정

- 1월 5-6일 교구 3개년 특별 전교의 해 연석회의
- 1월 6일 수도자 신년 미사
- 1월 8일 사제·부제 서품미사(광주여대학교)
- 1월 12일故이태석 신부 선종 10주기 추모미사  
(살레시오중고등학교)

### 사목국

#### 한국 틴스타 교사양성 워크숍

기간 : 1.30(목)-2.2(주일) / 시간 : 09:00-17:00  
장소 : 평생교육원 103호  
참가비 : 광주 시내 15만 원 / 광주시외 13만 원  
농협 601135-55-000446 광주구천주교회  
신청 : 접수순 30명, 1.19(화)까지  
문의 : 062) 380-2834, Fax : 062) 380-2815

#### 말씀의 봉사자 양성반 모집

대상요건 (모집 연령 : 만 58세 이하)  
-영세한지 3년이 경과하고 견진성사를 받으신 분  
-교구나 수도회에서 운영하는 성경공부에 2년 이상  
수료하신 분  
준비서류 : 말씀의 봉사자 양성반 추천서 및 신청서  
첫모임 : 2.27(목) 19:00, 교구청 사목국 회의실  
접수기한 : 1.30(목)까지  
문의 : 본당 사무실 및 성서사도직 062) 380-2260~1  
Fax : 062) 380-2815

### 카나혼인강좌

일시 : 1.19(주일) 12:30 / 장소 : 평생교육원 103호  
수강료 : 2인 3만 원(농협 601135-55-000431)  
신청 : 광주대교구 홈페이지 → 참여마당  
문의 : 062) 380-2834

### 청소년사목국

#### 복사학교(1박 2일)

1차 : 1.28(화) 10:00 - 29(수) 14:30  
2차 : 1.30(목) 10:00 - 31(금) 14:30  
장소 : 광주광역시청소년수련원  
대상 : 2020년 초등학교 6학년이 되는  
복사단 어린이  
접수 : 1.17(금)까지 그룹웨어 신청  
문의 : 062) 380-2271~2

#### 중1연수

기간 : 2.1(토) 10:00-2(주일) 12:30  
장소 : 광주광역시청소년수련원  
대상 : 2020년 중학교 1학년 입학예정자  
접수 : 1.15(수)까지, 접수순 200명  
문의 : 062) 380-2273~4

### 정의 평화위원회

#### 함께하는 세상을 위한 미사

일시 : 1.6(월) 19:00  
장소 : 평생교육원 대건문화관  
주제 : 언론개혁·과거 언론과 오늘의 언론  
강연 : 손석춘 교수(건국대학교)  
문의 : 062) 380-2290

### cpbc 광주가톨릭평화방송

www.kjpbcc.com FM 99.9MHz FM 99.5MHz

f 페이스북 kjpbcc99.9mhz t 트위터 kjpbcc

오늘의 강론 [월-토(본방송) 06:50-07:00] [월-금(재방송) 16:50-17:00]

1.6(월)-8(수) 송대경 신부(신안인덕 본당) / 1.9(목)-11(토) 양요섭 신부(본촌동 본당)



#### 2020년 광주대교구 사제·부제 서품미사' 실행 중계방송 안내

1.8일(수) 오후 2시부터 광주여대시립유니버시아드체육관에서 봉헌되는  
'2020년 광주대교구 사제·부제 서품미사' 실행이 라디오를 통해서 생중계되  
며, 페이스북과 유튜브를 통해서도 화면으로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 : '광주가톨릭평화방송-OnAir' (검색)-클릭-완료  
유튜브 : '광주가톨릭평화방송' (검색)-클릭-완료

사진은 2019 사제·부제 서품미사 모습

후대전화 문자메시지 #5005번(100원 유료)으로 축하 문자를 보내시면 방송으로 소개해드리고 선물도 보내드립니다.

새해에도 광주가톨릭평화방송 임직원 모두는 참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올해도 '항기로운 오후,  
주님과 함께', '함께하는 세상, 오늘' 프로그램을 애청해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Sf. 바오로 여행사** (홈페이지 : www.paulustour.com / 문의 : 062) 381-9004)  
이스라엘, 로마(11일) 3.5(목)-15(주일) 420만 원 / 터키, 그리스(13일) 3.9(월)-21(토) 395만 원  
이태리 일주(11일) 4.20(월)-30(목) 420만 원

### 광주가톨릭평생교육원

www.kccei.com

광주가톨릭문화원

가톨릭평화리현

책다하기사랑 도서관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80

T. 062) 380-2218

#### 2019년 겨울학기 특별강좌 수강생 모집

[자격-레크리에이션지도사] 19.12.23-2.24/월/8주 10:00-13:00 12만 원  
[교회음악원합창반] 19.12.16-2.24/월/8주 19:00-21:00 8만 원  
[성가합창발성법] 1.7-2.25/화/7주 13:30-15:30 7만 원  
[발성명가곡교실-초급] 1.8-2.26/수/8주 10:00-12:00 8만 원  
[발성명가곡교실-성악개인] 1.2-2.28/8주 요일·시간 개별협의 30만 원  
[시낭송을 통한 감성스피치] 1.8-2.19/수/7주 주간/10:00-12:00, 야간/19:00-21:00 7만 원  
[시낭송을 통한 감성스피치] 1.9-2.20/목/7주 10:00-12:00 7만 원  
[통기타] 1.6-2.24/월/7주 19:00-21:00 7만 원  
[클래식기타-그룹] 19.12.16-2.24/8주 월/10:00-12:00, 토/10:00-12:00 11만 원  
[클래식기타-개인] 19.12.16-2.28/8주 요일·시간 개별협의 초급/19만 원, 중급/24만 원  
[우리춤체조-2급/초급] 1.2-2.20/목/8주 10:30-12:00 8만 원  
[우리춤체조-2급/중급] 1.7-2.25/화/8주 19:00-20:30 8만 원  
[우리춤특강/장구춤] 19.12.21-2.22/토/8주 14:00-15:30 25만 원  
[해설이있는클래식음악감상] 1.7-2.25/화/8주 19:00-21:00 1만 원  
• 인터넷 www.kccei.com 회원가입 후 수강신청 및 온라인 결제 가능 • 문의 : 062) 380-2210~5  
• 교육입금계좌 : 광주은행 170-107-051747 (계)광주구천주교(교육원)



사회복지법인

### 가톨릭광주사회복지회

####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빵 다섯 물고기 둘' 후원회 기부금영수  
증은 주민등록번호(13자리)가 모두 등록  
된 후원자 분에 한해서 국제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우편발송을 통해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원하는 후원자께서는 가톨릭광주사회복  
지회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후원회 062) 510-2881

#### '빵 다섯 물고기 둘' 후원 안내

가톨릭광주사회복지회에서는 여러분들의  
따뜻한 마음을 모아 우리 교구 내 산하  
사회복지시설, 교정사목, 병원사목, 이주민  
북한이탈주민 등을 돕는 데 사용합니다.

농협 : 605-01-353182

광주은행 : 019-107-310370

우체국 : 500066-01-013298

국민은행 : 551-01-1449-309

후원회원을 위해

-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감사미사 봉헌
- '빵 다섯 물고기 둘' 회보 발송(분기별)
- 후원금품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

기관 · 단체

**사제·부제수품자를 위한**

**체나콜로 9일기도와 봉헌미사**

일시 : 1.6(월) 10:00~12:30 / 장소 : 염주동 성당  
문의 : 체나콜로 봉사회 010-3625-5037

**향삼기도새신요일**

일시 : 1.6(월) 10:00~16:00  
장소 : 중흥동 성당(미사 있음)  
문의 : 010-9111-5878

**서울 삼성산 무료치유 대피정**

기간 : 1.10(금) 18:00~12(일) 15:00  
강사 : 한철호 신부, 박효철 신부 등  
출발 : 광천터미널 12:00, 문예회관 후문 12:10  
문의 : 010-2374-9416

**20주년 젊은이 성체조배의 밤 대피정**

일시 : 1.11(토) 15:00~19:00  
장소 : 서울 가톨릭의과대학 마리아홀  
내용 : 특별초대 오상의 성 비오 신부 유물친구  
대상 : 청년 및 가톨릭신자 누구나 참여 가능  
회비 : 1만 원(간식 제공)  
주최 : 사랑이 피는 기도모임(AYG)  
문의 : 02) 6253-3373, 010-8360-3700

**골롬반 평신도선교사관심자모임(해외선교)**

일시 : 1.12(주일) 14:00~17:00  
장소 : 평신도선교사센터(4호선 성신여대 입구역)  
대상 : 만 23~38세 남녀  
문의 : 02) 929-4841, www.columban.or.kr

**소화자매원 월례미사**

일시 : 1.18(토) 10:00  
장소 : 소화자매원 지하성당 / 집전 : 조영대 신부  
문의 : 062) 675-4023

**젊은이 침묵피정(미혼여성)**

기간 : 1.18(토) 16:00~19(주일) 16:00  
장소 : 남평 글라렛선교수도회  
접수마감 : 1.16(목) 19:00까지  
문의 : 010-3359-1958

**임상사목교육(C.P.E.)**

-위기의 사람을 돕는 영적 돌봄가 양성  
기간 : 2.4(화)~5.26(화)/2.8(토)~5.23(토)  
장소 : 천주의성요한병원 CPE센터  
문의 : 010-2671-8174

**바오로딸 시청각통신성서교육원 학생모집**

과정 : 입문 / 중급 / 성바오로 신학영성 중 선택  
방법 : 우편과 이러닝(동영상 강의) 성경공부  
원서 : http://uus.pauline.or.kr / 1.31(금) 마감  
문의 : 02) 944-0819~24, 010-5584-8945

**2020 가톨릭교리신학원 통신(우편)신학과정**

대상 : 가톨릭 수도자 및 평신도  
(만 18세 이상, 학력제한 없음)  
내용 : 가톨릭 신학 26과목  
원서접수 : 2.7(금)까지(우편신청가능)  
문의 : 02) 745-8339, ci.catholic.ac.kr 원서다운가능

**돈보스코 직업전문학교 학생모집**

기간 : 3~12월(2월 예비학교)  
내용 : 기계가공, CAD/CAM, 인성교육  
혜택 : 교육비 무료, 수당지급(가공),  
취업(최근 5년 평균취업률 93.3%)  
대상 : 15~30세 남 / 문의 : 02) 828-3600

**2020년도 여대생 기숙사생 모집**

대상 : 서울소재 대학교 신입생, 재학생  
장소 : 전진상교육관(서울 명동소재)  
문의 : 전진상교육관 02) 726-0700~1,  
www.jjpcen.or.kr 게시판 참고

**2020년 국악성이 장구반주 수강생 모집**

개강 : 2.18(화) 일곡동 명상의 집  
수업 : 매월 1회, 셋째 주 화요일  
강의시간 : 14:00~17:00/19:00~22:00 선택  
수강료 : 연간 50만 원  
입금계좌 : 국민 295401-01-187345, 송민영(국악성가)  
문의 : 010-2279-0255

**가톨릭평화방송여행사성지순례**

2.3(월) 터키-그리스 12일 392만 원  
2.10(월) 스페인-포르투갈 10일 299만 원  
3.4(수) 폴란드-체코-오스트리아 11일 355만 원  
3.14(토) 이스라엘 9일 375만 원  
문의 : 02-2266-1591, www.cpbctour.co.kr

**65차 터키, 그리스 순례**

일시 : 10.19(월)~31(토)12박 13일, 430 만 원  
문의 : 010-9454-5648, www.terrasanta.kr  
작은형제회 이스라엘 성지 한국 대표부

**제주 먼현의집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도회수사들과 함께 제주성지·역사·평화 순례,  
미사(성무일도), 나눔, 올레길·오름 트레킹  
(모든 일정은 왕복항공 포함해서 접수가능)  
기간 : 1.13(월)~15(수), 1.17(금)~19(주일)(한),  
2.1(토)~3(월)(한), 2.7(금)~9(주일)(한),  
2.13(목)~15(토), 2.22(토)~24(월)(한)  
(한 : 한라산눈꽃산행)  
접수 : 02) 773-1463, 064) 756-6009

**제주성 이시돌 자연순례 피정**

(올레, 미사, 기도, 강의)  
기간 : 1.31(금)~2.2(주일), 2.11(화)~13(목),  
2.19(수)~21(금), 2.27(목)~29(토),  
3.5(목)~8(주일), 3.11(수)~13(금)  
대상 : 개인, 가족, 본당 단체 등  
문의 : 064) 796-9181

**수도회**

**영원한 도움의 성모 기도피정(구속주회)**

일시 : 1.8(수) 13:30 평생교육원 3층 경당  
1.14(화) 13:30 목포 가톨릭회관 2층  
내용 : 기도, 강의, 미사, 고해성사  
문의 : 구속주회 수사 010-7122-3441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기간 : 1.10(금)~12(주일), 4만 원  
장소 : 광주 살레시오 영성의 집  
대상 : 여 중·고생(예비 중1, 고3 졸업예정자 가능)  
문의 : 010-9749-8127

**정성조 새 신부첫미사 및 후원회 월례미사**

일시 : 1.11(토) 10:00  
장소 : 쌍촌동 성모승천수도회 본원  
문의 : 062) 374-1880, 010-3771-5098

**예수의 가리따스 수녀회 젊은이 피정**

일시 : 1.12(주일) 09:30  
장소 : 수녀회 본원 역사관  
문의 : 010-9169-7013

**예수고난화침묵피정**

기간 : 1.9(목) 16:00~12(주일) 14:30  
장소 : 일곡동 예수고난회 명상의 집  
비용 : 18만 원 / 문의 : 062) 571-5004

**예수고난화 「2020 청소년을 위한 프로젝트」**

기간 : 겨울(1~2월)-놀자놀면서 자기찾기  
여름(7~8월)-심자:심성개발 자아찾기  
장소 : 일곡동 명상의 집  
문의 : 062) 571-5004, 010-3465-5452  
\*자세한 일정은 전화로 문의주세요

**살레시오회 중고등부 성소피정**

기간 : 1.18(토)~19(주일)  
장소 : 살레시오 수도원, 신안동 자미로 42  
대상 : 예비 중1-예비 고2 / 문의 : 010-7563-8332

**살레시오회 겨울 성소 대피정**

기간 : 1.31(금)~2.2(주일)  
장소 : 돈보스코청소년센터(여의대방로 65)  
대상 : 예비 고3·성인(만 33세 이하)  
문의 : 010-5159-3949

**한국외방선교수녀회성소모임**

대상 : 수도생활과 해외선교에 관심 있는 미혼여성  
장소 : 원하는 곳(미리 연락)  
문의 : 010-9353-1773 노아수녀

**본당**

**용봉동 성당성가대 지휘자 모집공고(유급)**

모집기간 : 2월 말까지 / 문의 : 062) 523-8004

**담양본당사무장 채용공고**

자격 : 세례 3년 이상, 컴퓨터 작업 가능(필수),  
1종 보통(선택)  
서류 : 이력서, 자기소개서  
본당신부 추천서, 교적 및 자격증사본  
모집기간 : 1.23(목)까지  
문의 : 061) 382-9004



**목포가톨릭대학교**  
MOKPO CATHOLIC UNIVERSITY

**생명존중과 인간사랑을 실천하는  
인재양성의 요람 목포가톨릭대학교!**

**2020학년도 전기 편입생 모집**

1. 모집학과 및 인원 :  
간호학과 - 일반(5), 학사(2),  
전문학사학위(9)  
사회복지학과 - 일반(1)  
유아교육과 - 일반(2)
2. 원서접수 : 20.1.3(금)~10(금)
3. 인터넷 원서접수처 : 유웨이
4. 입학 상담 : 061) 280-5108, 5150

모두 함께합시다!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 운동**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밤 9시 주모경 바치기**